

박찬대 “5·18 헌법 수록·전남 공공의대 설립으로 호남 도약”

민주 당대표 출마…광주시의회서 광주·전남·북 공약 발표 기자회견
AI·해상풍력 육성, 전북 올림픽 유치…내년 지방선거 경선룰 정비도

“민주주의를 지킨 특별한 공헌이 있는 호남에는 특별한 지원 정책이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7일 “5·18 정신 헌법 명문화, AI국가산업 육성, 전남 공공의대 신설, 여수 석유화학 고도화 등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호남이 묻고, 박찬대가 답하다’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와 정반대의 동선으로 당세가 약한 지역에서 뛰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아쉽게도 호남을 자주 찾지 못했다”면서 “늦게나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의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호남의 꿈을 마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남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일주일간 호남살이를 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이번 호남 일정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공공의대, 세만공, 해상풍력 등 오랫동안 방치된 현안에 대한 깊은 피로감, 수도권 중심 정당구조에 대



박찬대 의원

시했다.

광주에는 5·18 정신을 헌법에 명문화해 내란의 역사를 종식을 약속하고, AI국가산업 육성과 도심철도 지하화, 광역철도망 연결,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정부 TF와 함께 적극적 입법·재정지원 등을 약속했다.

전남에는 공공의대 신설, 해상풍력·영농형 태양광 등 에너지 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RE100 허브 조성, 여수 석유화학 산업 고도화와 친환경 전환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 일자리 확보를 제시했다.

전북에는 2036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위한 지원,

한 서운함 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를 들었다”면서 “공공의료·농어촌 인프라 등 호남 현장에서 직접 들은 제도·정책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박 후보는 광주, 전남·북지역을 아우른 공약을 제

전라선 KTX 고속화, 호남고속도로 2단계 조기 완공, 서부내륙고속도로 등 촘촘한 교통망으로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이지만 결코 안주할 수 있는 텃밭”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호남의 도약을 반드시 이뤄 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당대표에 당선되면 빠르게 8월내 지방선거 기획단을 만들어 올해 연말내에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공천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호남에서는 “경선이 곧 본선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선이 치열하다는 점에서 공천잡음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기성 정치인의 공헌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신인들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천물을 신속히 만들어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하겠다는 것이 박 후보의 계획이다.

지방선거 경선에서 권리당원 비율 조정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는 “지방선거기획단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적절한 방식을 내놓겠다”면서 “다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에 대한 부분은 일대일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지만 속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여성의 정치 비율을 높이는 것과 청년의 정



7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지자들이 박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조류”라면서 “기존 지향점을 유지하면서 더 발전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달 2일 진행될 민주당 당대표 선거 권

역별 순회경선은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광주-전남 경선은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정위, 오늘부터 3일간 ‘호남권 목소리’ 경청

목포·순천·구례서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정책제안 등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8일부터 호남을 방문한다.

국정기획위는 “8일부터 10일까지 호남에서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연다”고 7일 밝혔다.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은 국정기획위가 운영하는 현장 소통 프로그램으로 전문 조사관이 전국을 순회하며 주민들로부터 지역 숙원사업과

정책제안, 민원, 갈등 등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주 강원도를 시작으로 모두의 광장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이 주 전남 3개 도시인 목포, 순천, 구례를 방문한다.

주민들은 목포시장 대회의실(8일 오전), 순천 호남호국기념관(9일), 구례 서시교(9일 오후)에서 국정기획위에 직접 민원을 전달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또 현장의 소리를 듣고 위해 목표 달성전(침수예방 전비현장) 순천 승주읍 평중리(그린바이오 신산업 현장), 구례 봉동리 서시교(교통약자 불편 개선 요구 민원)을 찾아 지역민들의 애로사항과 주민 의견을 듣는다.

이번 국정기획위 호남 방문에는 박규설 국정기획위 위원장 직속 국민주권위원회 전문보좌역이 참석한다. 이와함께 국민권익위원회도 상담장을 마련, 민생 소통장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안철수, 국힘 혁신위원장 사퇴·전대 출마

“당내 인적 쇄신 협의 불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 위원 인선에 반발해 내정 닷새 만인 7일 위원장을 전격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당 비대위가 혁신위 구성을 의결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

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또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의사부터 먼저 타진했다”며 “주말 동안 의견을 나눴지만 결국 (쇄신안을)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면

서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돼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며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말뿐인 혁신, 소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에 중지부를 찍겠다”면서 “진짜 혁신, 살아있는 혁신, 직접 행동하는 혁신 당 대표가 되겠다. 우리 당이 잃어버린 진짜 보수 정당의 얼굴을 찾겠다”고 했다.

앞선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대위는 최형두(경남 창원 마산합포) 의원, 호준성 당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을 혁신위원으로 임명하는 혁신위 구성을 의결했다.

/연남뉴스

여의도 브리핑

“정부 2차 추경 지역 예산 증액은 협력 결실”

안도걸 의원, 기재위 활동

‘호남 예산 지킴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동남을·기재위 예정소위원회) 국회의원이 7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광주·전남지역 예산이 총 3036억원 증액·반영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민생회복과 침체된 경기 부양이라는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며 국회의원,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2차 추경에서 증액된 3036억원은 1단계 정부안 2813억원에 더해 2단계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223억원이 추가 확보됐다.

안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 가장 중요한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기재위 예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같은 성과를 이끌었다.

안 의원은 전역 삭감된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 예산 183억원을 복원한 일화 등을 소개했다.

안 의원은 “이 사업은 정부가 추경 편성단계에서 국가·지자체간 사업재원 분담비율에 대한 이견 등으로 금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컸던 사업”이라며 “다행히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가 중재자로 나서 광주시가 재원 분담 입장을 표명하고, 연내 사업집행 여건 등이 확인되면 서 사업비 183억원이 극적으로 복원됐다”고 소개



했다.

또한 전남지역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추경 예산안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광주·목포, 1000억원) ▲신안 압해-해남 화원 간 국도 해상교량·터널 건설비 및 보상비(360억원) 등도 꼼꼼하게 챙겨 최종 반영됐다고 했다.

안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프로젝트를 추진할 청사진을 그리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고 ACC·양림권역·무등산을 연결하는 ‘글로벌 문화관광다운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 2억원을 확보하면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 “한전 에너지공대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100억원도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편성돼 2025년도 본예산 100억원과 함께 총 200억원이 확보됐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모던건설
MODERN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